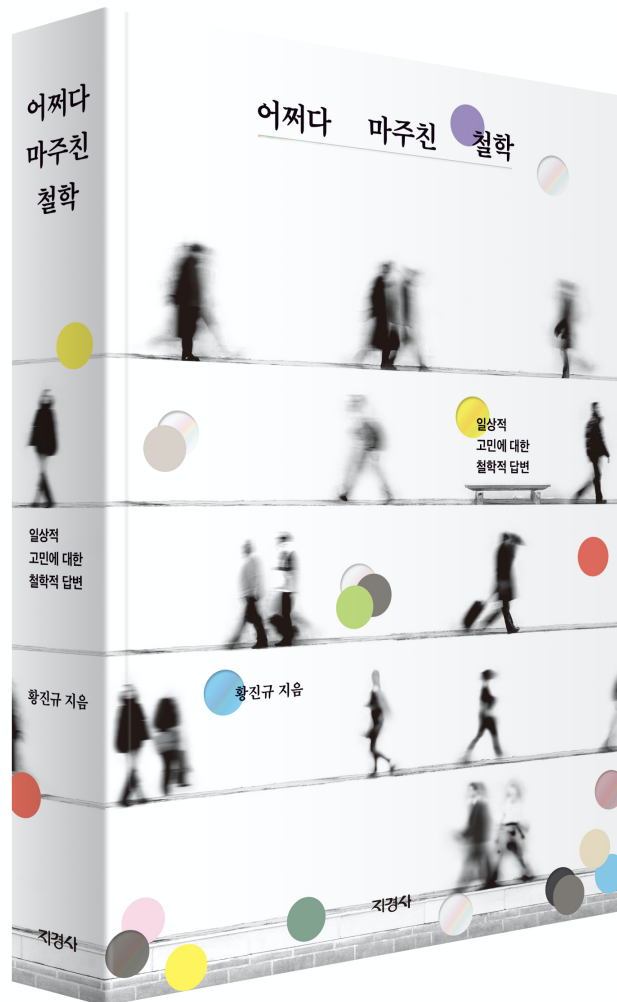


일상적 고민에 대한 철학적 답변

어쩌다 마주친 철학



책 소개

같은 고민에 발목 잡혀 제자리를 맴도는 삶.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긴 시간 외면해왔던 복잡하고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 속에 있다.

“왜 무기력해질까?”, “왜 새로운 시작은 어려울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고민이다. 하지만 이런 물음에 제대로 된 답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 시대 많은 이들은 일상의 고민에 대해 단순하고 쉽고 가벼운 답변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취업이 고민인 이가 자기계발서나 유튜브 영상에서 ‘생생하게 꿈꾸며 노력하라!’는 답변을 찾았다고 해보자. 그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

나지 않는다. 단순하고 쉽고 가벼운 답변은 잠시의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더 공허하고 허망한 느낌에 빠져들게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유는 간명하다. 겉보기에 단순하고 쉽고 가벼운 고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단순하고 쉽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네 일상의 고민에는 사실 복잡하고 어렵고 무거운 문제들이 뒤엉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든 그것을 진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렵고 무거운 문제까지 기꺼이 고민해봐야 한다. 그런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같은 고민에 발목 잡혀 늘 제자리를 맴도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다 마주친 철학』은 우리의 일상적 질문에 철학자가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봤지만 한 번도 답하지 못했던 고민에 대해, 탈레스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더 나아가 아우구스티누스와 오컴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탁월했던 고대, 중세 철학자 17명이 자신만의 답을 이야기해준다. “왜 새로운 시작은 어려울까요?”라는 고민에 고대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기울어져 빛나가는 것(클리나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답한다. “반복되는 삶이 지겨운가요?”라는 고민에 종교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반복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다.”라고 답한다. 처음에는 이런 철학자들의 답이 난해하고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유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일상의 고민 속에 복잡하게 엉켜 있는 문제들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생각의 틀을 갖게 된다. 더 나아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당대 최고의 지성들의 사유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고민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저자는 철학의 궁극적인 쓸모는 일상의 고민에 ‘스스로’ 답하는 것이라 말한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하고 쉽고 가벼운 것에 있지 않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긴 시간 외면해 왔던, 복잡하고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고되고 불편하더라도, 복잡하고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다. 그러니 이제는 철학을 만나볼 시간이다. 어쩌다 마주친 이 책이, 아니, ‘어쩌다 마주친 철학’이 모든 것을 바꿀 작은 빛나감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서지 정보

부제: 일상적 고민에 대한 철학적 답변

지은이: 황진규

출판사: 지경사(주)

발행일: 2022년 4월 15일

판형: 128mm*188mm

쪽수: 408쪽

가격: 18,000원

분야: 국내도서 > 인문 > 인문/교양 > 철학 일반 > 교양 철학

ISBN: 978-89-319-3397-0

담당자 김혜원

010-9495-9980 | jigyungsa@gmail.com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1. 철학은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나요? _탈레스의 ‘형이상학’
2. 나와 다른 것은 왜 불편할까요? _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
3. 왜 쉽게 위축되거나 오만해질까요? _소크라테스의 ‘성찰’
4. 강박적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_플라톤의 ‘이데아’
5. 왜 무기력해질까요? _플라톤의 ‘원인론’
6.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_디오게네스의 ‘시니시즘’
7.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_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8. 어떻게 타인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_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스’
9.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_스토아학파의 ‘아파테이아’
10. 피해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_에피쿠로스의 ‘아타락시아’
11. 왜 새로운 시작은 어려울까요? _루크레티우스의 ‘클리나멘’
12.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궁금한가요? _아우구스티누스의 ‘과거, 현재, 미래’
13.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_안셀무스의 ‘믿음’
14. 일하지 않고 돈 벌고 싶은가요? _토마스 아퀴나스의 ‘실재론’
15. 변덕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_둔스 스코투스의 ‘헥시어티’
16. 어떻게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요? _오컴의 ‘오컴의 면도날’
17. 반복되는 삶이 지겨운가요? _키르케고르의 ‘반복’

에필로그

책 속으로

진정한 기쁨은 단순하고 쉽고 가벼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짧은 영상을 볼 때 혹은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할 때 잠시는 좋지만 그 삶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시대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진정한 기쁨, 즉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행복은 놀라지 않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된 상태라는 것이죠.

벤야민의 이야기에 비춰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는 행복할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해고, 이별, 사랑, 죽음)이 들이닥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요. 갑작스레 해고나 이별을 당하면 언제나 자신감 넘칠 것이라 믿던 ‘나’는 온데간데없고, 잔뜩 위축되고 겁먹은 ‘나’를 깨닫게 되어 소스라치게 놀라죠. 갑작스레 사랑이 찾아오면 언제나 냉철할 것이라 믿던 ‘나’는 온데간데없고, 하루 종일 감정의 요동에 휩싸인 ‘나’를 발견하곤 소스라치게 놀라죠. 죽음 역시 마찬가지로 아닐 겁니다.

담당자 김혜원

010-9495-9980 | jigyungsa@gmail.com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건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 ‘나’를 알기 어려운 것일까요? 진짜 ‘나’의 모습은 우리가 긴 시간 외면해왔던, 복잡하고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고되고 불편하더라도, 복잡하고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일 겁니다.

- ‘프로로그’ 중에서

우리는 왜 무기력해지는 걸까? 종종 무기력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플라톤’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의 의미는 세상 너머에 있는 ‘형상(이데아)’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플라톤’적 세계관. 이제 우리는 무기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도 좋겠다. ‘플라톤’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만큼 무기력해진다!

(...) ‘들뢰즈’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이들은 유쾌하고 활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정해져 있는 삶의 의미 같은 것은 없고, 우연한 마주침에 의해서 삶의 의미가 구성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오늘’과 ‘내일’은 주어진 ‘형상(운명)’을 발견해야 할, 퇴행적이어서 우울한 시간이 아니다. ‘어제’와 다른 삶의 의미를 만들어갈 새로운 ‘지층(마주침)’을 형성할 기쁘고 유쾌한 시간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정해진 의미는 없다는 것. 대상의 의미는 오직 우발적 마주침에 의해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것.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무기력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과감하게 ‘들뢰즈’의 세계로 들어서야 한다.

- ‘왜 무기력해질까요?’ 중에서

우리는 목적 없는 존재들을 긍정할 수 있을까? 돈을 벌지 않는 일, 책을 내지 않는 글, 목적지가 없는 여행, 더 나아가 태어난 이유를 알지 못한 삶. 그런 목적 없는 ‘일’, ‘글’, ‘여행’ 그리고 ‘삶’을 긍정할 수 있는가? 그런 목적 없는 존재들을 긍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 안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넘는다는 것은, 달리 말해 우리 시대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목적론적 삶의 태도를 넘어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목적론적 세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냥’ 하면 된다. 불필요한 의미 부여나 거창한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살면 된다. 교양을 쌓기 위한 음악이 아닌 ‘그냥’ 듣는 음악, 돈을 벌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닌 ‘그냥’ 쓰는 글, 재충전을 위한 여행이 아닌 ‘그냥’ 하는 여행. 이와 같은 ‘그냥’ 사는 삶으로 목적론적 세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때 알게 된다. ‘목적론’적 세계는 우울한 세계고, ‘그냥’의 세계는 유쾌하고 명량한 세계임을. 당연하지 않은가? ‘목적’ 없이 ‘그냥’ 하는 일들은 반드시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니까 말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더 아는 척 매뉴얼’ 중에서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앞 이전의 믿음과 앞 이후의 믿음. 전자는 ‘신앙적 믿음(알기 위해서 믿는다!)’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이성적 믿음(알아야 믿는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말하는 관계가 전제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후자다. 우리는

아무나 믿지 않는다. 그 사람 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이성(경험·논리)적으로 따진 후에 믿게 된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생긴 후에야 우리는 소위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 ‘이성적 믿음’은 역설적으로 불신이기 때문이다.

‘나’ 아닌 ‘한 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다 알 수 있단 말인가? 안셀무스가 만났던 ‘신’과 우리가 만났던 ‘한 사람’은 다르지 않다. 안셀무스가 어떤 지성으로도 ‘신’을 다 이해할 수 없었듯, 우리 역시 복잡하고 미묘하게 뒤엉킨 삶의 맥락이 만든 ‘한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한 사람’을 알 수 있는 만큼 알게 되고, 그 만큼만 믿는다. 이는 뒤집어 말해, 알 수 없는 부분만큼은 불신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한 사람’을 ‘믿는다’,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믿지 못하는 것 앞에서는 항상 나를 보호해야 하니까 말이다.

진정한 사랑, 즉 ‘계산하지 않음’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은 ‘신앙적 믿음’이다. 매혹적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 뭔가 알고 싶고 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신앙적 믿음’이다. 마치 절대자인 ‘신’을 믿듯, ‘한 사람’도 그렇게 믿게 될 때가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매혹적인 사람을 알아가게 되고, 그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싹튼다.

이 ‘신앙적 믿음’으로 시작된 사랑에 계산은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기도 전에 이미 믿어버린 사람 앞에서 어떻게 계산 따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늘 더 주어도 덜 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늘 덜 준 것 같은데도 미소를 보내주니 그리도 고맙다. 이것이 사랑이다.

-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중에서

기독교든 자본주의든 초월적 대상을 욕망하는 모든 종교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허무와 공허로 내몬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초월한 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실존적 조건을 초월하려는 모든 신적 욕망의 끝에는 지독한 슬픔이 있을 뿐이다. 기쁨은 삶 ‘밖’이 아니라 삶 ‘안’에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긍정해야 한다. 아퀴나스는 틀렸다. 진리는 사유와 존재의 일치가 아니다. 진정한 진리란 사유와 존재의 불일치다. 생각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순수한 정신노동은 없다. 정신노동을 향한 열망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초월하려는 헛된 욕망일 뿐이다. 노동 없는 삶을 추구하지 말라. 그것은 몸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헛되고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거꾸로 안다. 노동 없는 삶이 기쁜 삶이 아니다. 노동하는 삶이 기쁜 삶이다. 다만 우리가 기쁜 노동을 마주치지 못했을 뿐이다. 초월적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두 발을 땅에 꼭 붙이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우리네 삶을 유쾌하고 명랑하게 만들어줄 직업은 그렇게 찾을 수 있다. 가장 기쁜 삶은 죽기 전날에도 하고 싶은 노동을 찾는 삶이다.

- ‘일하지 않고 돈 벌고 싶은가요?’ 중에서

“시를 마음으로 새겨야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머리는 교환의 신체기관이지만, 심장은 반복을 사랑하는 기관이다.” - 질 들뢰즈, <차이의 반복>

담당자 김혜원

010-9495-9980 | jigyungsa@gmail.com

들뢰즈는 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 진정한 반복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반복은 심장을 따르는 일이다. 진정한 반복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의 말처럼, “심장은 반복을 사랑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심장’을 따르는 일이 어디 쉽던가? 우리는 “교환의 신체기관”인 ‘머리(이성)’에 익숙하다. 이것이 우리가 시를 반복하지 못하는 이유다. 시는 머리를 아무리 굴려 봐도 돈이 안 되니까.

‘시’를 ‘사랑’으로 바꿔 읽어도 좋다. ‘사랑’ 역시 진정한 반복이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새겨야 하고, 그것은 ‘머리’를 굴리는 일이 아닌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이니까 말이다. ‘차이 없는 반복(직장)’에 질식하면서 ‘새로움에 대한 탐닉(쇼핑)’을 할 뿐, ‘차이의 반복(사랑)’에 쉽사리 눈길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벌고 쓰는 삶이 가장 중요하기에 ‘진정한 반복(차이의 반복)’은 외면했던 것 아닌가?

우리 시대 너머에 있는 철학자, 들뢰즈가 남아 보이는 종교 철학자 키르케고르를 주목했던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다. ‘진정한 반복’에 대한 열의를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건 도약’이기 때문이다. ‘신’이 아닌, ‘이성’이 아닌, ‘자본’이 아닌, 바로 ‘타자’를 향한 목숨을 건 도약! 그 도약이 공허함과 무의미를 넘어 활력과 유쾌함이 넘치는 땅으로 나아가게 해줄 테다.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반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가 로도스다. 뛰어내려라(Hic Rhodus, hic salta)! ”

- ‘반복되는 삶이 지겨운가요?’ 중에서

출판사 서평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의 편집자이자 저자 황진규의 제자 김혜원입니다. 흔히들 편집자를 ‘최초의 독자’라고 합니다. 아직 원고 상태인 저자의 글을 최초로 읽는 사람이 바로 편집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철저히 ‘저자’의 편에 서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제 철학 스승이자 저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생각하지 않고, 일단 소중한 사람의 소중한 생각을 최대한 온전히 담아내자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글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온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최초의 독자’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자’의 편이 아닌, ‘독자’들의 편에 선 ‘최초의 독자’ 말입니다. 저자와 독자를 어떻게든 이어주고픈 소개팅 주선자의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은 독자 1호의 서평인 셈이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렵습니다. 이 책이 현학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난해하고 복잡한 철학 개념들을 최대한 일상적인 언어와 예시로 설명하려고 애를 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어렵습니다. 저자가 철학자들의 개념을 빌려 우리의 고민에 답하는 방식이 매우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하지 않고 돈 벌고 싶은가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담당자 김혜원

010-9495-9980 | jigyungsa@gmail.com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더 이상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되묻지 않을 정도로 당연시되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이 고민에 저자는 중세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진리론’을 설명하며, 일하지 않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생각만으로 물질을 만드는 ‘신’이 되고 싶은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이 ‘밥’을 생각만 하면 ‘밥’이 뿜 하고 나타나듯, 우리도 ‘돈’을 생각만 하면 ‘돈’이 뿜 하고 나타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자는 이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인간은 생각만으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노동’의 존재라고요. 인간에게 주어진 실존적 조건들을 초월하려는 욕망, 즉 노동의 존재인 인간이 노동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몸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헛되고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덧붙입니다. “노동하는 삶이 기쁜 삶이다. 다만 우리가 기쁜 노동을 마주치지 못했을 뿐이다. 가장 기쁜 삶은 죽기 전날에도 하고 싶은 노동을 찾는 삶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반복되는 삶이 지겨운가요?” 역시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법한 고민입니다. 이 질문에 저자는 근대의 종교철학자 키르케고르의 말을 빌려 답합니다. “반복은 지겨운 것이 아니다. 반복은 새로운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두 가지 반복이 있다고 합니다. 뒤를 향한 되풀이인 ‘기억’과 앞을 향한 되풀이인 ‘반복(Gjentagelsen)’이 그것입니다. 전자는 같은 영화를 다시 볼 때처럼 차이가 없는 되풀이인 반면, 후자는 같은 연극을 다시 볼 때처럼 미묘한 차이를 계속 발견하게 하는 되풀이입니다. 다시 말해, 전자는 차이 없는 반복이고, 후자는 차이 나는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저자는 두 번째 반복, 즉 차이의 반복이 우리를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구원해줄 열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쳇바퀴 같은 일상에 질식할 것 같을 때, 새로움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새로운 영상, 옷, 맛집, 여행지, 사람을 끊임없이 탐닉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더 새로운 것’의 끝에는 공허와 허무밖에 없다는 사실어요. 우리는 ‘일상의 지루함’과 ‘새로움의 공허함’ 사이에서 휘청거리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저자는 ‘차이 없는 반복’의 지루함과 ‘반복 없는 새로움’의 공허함 너머 우리 삶을 진정으로 유쾌하게 해줄 ‘차이의 반복’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지겨움에 삶이 시들어간다고 해서 매번 새로운 사람을 찾아 헤매서는 안 된다.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만나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마치 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매번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매번 만날 때마다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책, 음악, 영상이든, 여행지, 운동이든, 아니면 한 사람이든, 이 ‘같으면서도 다른’ 것들의 반복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키르케고르가 말한 진정한 ‘반복’이며, 무의미한 삶에 활력을 줄 ‘반복’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편하고 불쾌하다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함과 불쾌함은 저자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에 발생하는 감정일 테니까요. “일하지 않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초월하려는 헛되고 위험한 욕망이다.”라는 저자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불편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동이 기쁜 노동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차이 없는 반복이나 새로움에 대한 탐닉이 아닌, 차이의 반복만이 우리 삶을 구원한다.”는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지금 내가 되풀이 하고 있는 일상이 전부 삶을 질식시키는 차이 없는 반복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대체 뭘지 감조차 잡기 어려울 수도 있죠. 불편함, 불쾌

함, 답답함. 이것은 진짜 철학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진짜 철학은 우리 시대 너머의 이야기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지요.

제가 편집자로서 이 책을 만들 때 바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 몇 명이라도 철학이 불리일으키는 불쾌함과 불편함, 답답함 속에서 묘한 끌림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젠가 저에게 철학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삶의 고민에 질식되어 죽고 싶을 때 철학을 만났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힐링 여행 같은 가벼운 방법은 물론이고, 자기계발, 심리학, 종교와 같이 나름대로 진지한 방법으로도 도무지 삶의 고민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우연히 황진규 저자의 철학 수업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처음 철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철학은 불쾌하고 불편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도대체 철학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조차 하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그 불쾌함과 불편함, 답답함 속에 이상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들어보고 싶은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상한 끌림에 이끌려 지금까지 근 4년 동안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며 저는 삶을 질식시켰던 일상의 고민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기쁘고 유쾌한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철학’이 제 삶을 전부 바꾸어 놓았다고요.

고대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세상은 어떤 원자의 작은 빗나감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이 ‘작은 빗나감’을 ‘클리나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이 여러분들 삶에 작은 빗나감을 만들어내는 ‘클리나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철학이 제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작가 소개

황진규

“앓과 삶을 연결할 수 없다면 철학은 필요 없다.”

철학을 공부하며, 글을 쓰고, 수업을 하며 산다. 앓과 삶을 연결하려는 인문공동체, ‘철학흥신소’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다. 철학과 삶에 대한 주제로 몇 권의 책을 썼고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다.

『스피노자의 생활철학』(2020년), 『가드를 올리고 도망치지 말 것』(2019년), 『한입 매일 철학』(2018년), 『철학보다 연애』(2017년), 『고통 말고 보통』(2016년), 『처음 철학하는 사람을 위한 아는 척 매뉴얼』(2016년), 『소심 타파』(2015년) 등의 저서가 있다.

상세 페이지

담당자 김혜원

010-9495-9980 | jigyungsa@gmail.com

05

왜 무기력해질까요?

플라톤의 '원인론'

플라톤의
'원인론'

강제되기를 바라는 마음

"비싼 PT를 왜 몇 년째 받고 있어?"

"헬스장만 끊으면 안 가잖아. 근데 PT를 끊어놓으면 어떻게든 나가게 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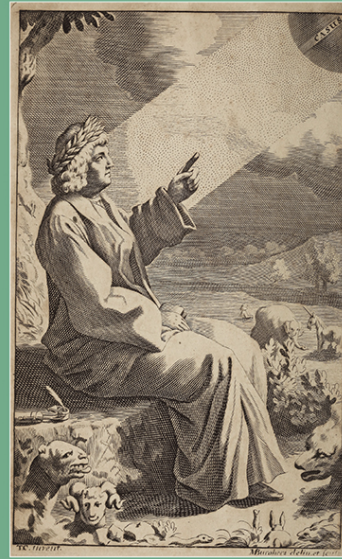
'퍼스널 트레이너(PT)'라는 직업이 있다.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개인별로 운동을 지도해주는 직업이다. 이 PT는 어느 순간 유행처럼 번졌다. 이제는 헬스장에 가서 PT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PT를 만나기 위해 헬스장에 가야 할 만큼 PT는 대중화되었다. PT는 왜 이렇게 유행하게 된 걸까?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섹시한 외모를 원해서? 정확한 운동 방법을 알고 싶어서? 어느 하나 틀린 것은 없지만, 이는 모두 개별적이고 피상적인 이유일 뿐이다.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운동하고 싶지 않아서다. 예외적인 몇몇을 제외하면, 사람들이 PT를 찾는 이

루크레티우스는 세계(자연 전체)가 '물체'와 '빈 공간'이라는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물체'는 연필·노트·가방 같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런 대상들을 이루는 근본인 '원자'를 의미한다. 루크레티우스에 따르면, 이 '원자'는 무한히 많고 궁극적이며 더 나눌 수 없는, 아주 작은 '딱딱한' 원소다. 그리고 '빈 공간'은 외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한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루크레티우스는 세계가 무한히 많은 '원자'와 그 원자가 운동할 수 있는 무한한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제외한 제3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루크레티우스의 세계는 무한한 '빈 공간'에 무한한 '원자'가 쏟아지고 있는 세계다. 이를 이미지화하면, 철쭉 같은 어두운 밤하늘(빈 공간)에 비(원자)가 쏟아져 내리는 상황을 떠올리면 된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빈 공간'과 '원자'뿐이라면 연필·꽃·나무·새·구름·인간 등등 우리가 보는形形色색의 구체적인 대상은 어디에 있던 말인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루크레티우스가 말한 무한한 '빈 공간'에 무한한 '원자'가 쏟아지고 있는 세계는 '세계 이전의 세계'다. 즉, 우리가 보는 구체적인 대상(연필·꽃·나무·새·구름·인간)들이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미카엘 부르거스의 <루크레티우스>(1682).
루크레티우스는 세계의 기원이
어느 원자의 우발적 빛나임(칼리나벤)이라고 보았다.

안셀무스

더 아는 척 매뉴얼

안셀무스는 스콜라(schola)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스콜라 철학은 중세의 학문적인 신학을 의미한다. '스콜라'는 '스쿨 school'의 어원인데, 이는 중세 시대에는 교회에서 일종의 학교를 만들어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이성적 사유를 통하여 논증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안셀무스는 어떤 권위(성서·성직자)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이성적인 근거를 통해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이런 그의 노력으로 스콜라철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의 스콜라철학적인 면은 '신론 증명'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셀무스는 신을 어떻게 증명했을까?

우리는 신이 <그보다 더 큰 것이 아무것도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임을 믿습니다. ...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그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적어도 지성 속에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들을 때 이해하고, 이해된 것은 무엇이든지 지성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은 단지 지성 속에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지성 속에만 존재한다면, 실제로도 존재하는 것이 생각될 수 있고, 이것은 지성 속에만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보다 더욱 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은 지성 안에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 안셀무스, <프로솔로기온>

안셀무스는 신을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 신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이는 자명하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닐 테니까. 신을 믿지 않는 이도 이런 신(그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지성 속에(머릿속

에 있을 수 없다. 무한에는 외부 자체가 있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말한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은 세상 그 자체이다. 달리 말해, '신'은 내재적 원인, 즉 세상 전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서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스피노자의 신은 무엇일까? 바로 '자연'이다. 정확히는 자연 그 자체다. '자연'이 '자연' 되게, '자연'을 '자연'스럽게 하는 어떤 힘. 그것이 바로 신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세상의 외부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계절을 바꾸고, 꽃·눈·바람·파도·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세상 안에 있는 자연 그 자체가 바로 자연 현상(계절변화·바람·파도) 혹은 자연물(꽃·눈·인간)들을 만든다. 스피노자의 신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 스피노자의 신은 자연이다. 자연은 자연스러울 뿐,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는다. 또 자연(신)을 따른다는 것은 저마다의 자연스러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밖에 있는 초월적인 신 앞에서 우리는 노예가 되지만, 세계 안에 있는 스피노자의 신 앞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다.



스피노자는 논리적 증명을 통해 신의 존재를 규정한다. 스피노자의 신은 세상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서 세상 만물을 만들어 내는 존재, 바로 '자연'이다.

들뢰즈의 말처럼, "심장은 반복을 사랑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심장'을 따르는 일이 어디 쉽던가? 우리는 '교환의 신체기관'인 '머리(이성)'에 익숙하다. 이것이 우리가 시를 반복하지 못하는 이유다. 시는 머리를 아무리 굴려 봐도 돈이 안 되니까.

'시'를 '사랑'으로 바꿔 읽어도 좋다. '사랑' 역시 진정한 반복이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새겨야 하고, 그것은 '머리'를 굴리는 일이 아닌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이니까 말이다. '차이 없는 반복(직장)'에 질식하면서 '새로움에 대한 탐닉(쇼팽)'을 할 뿐, '차이의 반복(시·사랑)'에 쉽사리 눈길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숨만큼 소중한 돈 때문 아닌가? 돈을 벌고 쓰는 삶이 가장 중요하기에 '진정한 반복(차이의 반복)'은 외면했던 것 아닌가?

우리 시대 너머에 있는 철학자, 들뢰즈가 남아 보이는 종교 철학자 키르케고르를 주목했던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다. '진정한 반복'에 대한 열의를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건 도약'이기 때문이다. '신'이 아닌, '이성'이 아닌, '자본'이 아닌, 바로 '타자'를 향한 목숨을 건 도약! 이 도약이 공허함과 무의미를 넘어 활력과 유쾌함이 넘치는 땅으로 나아가게 해줄 테다.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반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가 로도스다. 뛰어내려라! Hic Rhodus, hic salta!"



Dáni Karavan, Passages - Homage to Walter Benjamin, detail of the environmental sculpture, 1990-1994, Portbou, Spain, (c) Jaume Blassi